



# 金井議政

제2015-5호

2015년 5월 1일(금)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 금정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 기간 : 2015.04.08(수)~04.14(화) ▶7일간
- 장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석 : 의원전원
- 안건
  -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 ▷ 현장방문



연번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15.4.14	원안의결
2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30	15.4.14	원안의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조례안	15.3.30	15.4.14	수정의결
4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촉구 결의안	15.4.13	15.4.14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384) : 심사보류

## 의정 일지

일시	내 용	비 고
4/1(수) 11:0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의원
4/2(목) 10:30	·구 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의장
4/2(목) 15:30	·노포화훼단지 꽃 축제	의장
4/2(목) 18:00	·의정동우회 환경정비 및 간담회	의원

일시	내 용	비고
4/5(일) 11:00	·제2회 윤산 벚꽃축제 개막식	의원
4/6(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4/7(화) 10:00	·의회 의장단 회의	의장단
4/7(화) 10:30	·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의원
4/8(수) 11:00	·제2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4/9(목) 10:00	·상임위원회 조례안검토 및 현장방문	의원
4/10(금) 10:00	·상임위원회 조례안검토	의원
4/12(일) 11:00	·제2회 금정구탁구연합회장배 탁구대회 개회식	의원
4/13(월) 10:00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	의원
4/14(화) 10:00	·치안정책설명회	의원
4/14(화) 11:00	·제2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4/14(화) 12:00	·제24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의원
4/18(토) 10:00	·제4회 금정구 유관기관 체육대회	의원
4/19(수) 08:30	·제19회 금정구테니스연합회장기 대회	의원
4/19(일) 11:00	·제20회 금정구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	의원
4/20(월) 10:30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의장
4/20(월) 13: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4/20(월) 15:00	·섯골문화예술촌 개소식	의원
4/24(금) 10:30	·수연어린이집 원아 의회체험 교실	의원
4/27(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4/29(수) 09:00	·의회 문화예술정책연구회 타시도방문(대구달서구 달성군)	의원

## 주요 의정 활동

### ■ 제234회 임시회 개회 현장방문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 234회 임시회를 열고, 주민도시위원회는 구서초등학교 옹벽 공사 현장, 수영강 일원 재해복구 공사 현장 및 온천천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 2015년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오전 10시 금정구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로부터 2015년 치안정책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 및 지역사회 치안 강화로 '안전한 금정구 만들기'를 위하여 개최되는 본 치안설명회는 금정경찰 주요 치안활동 설명 및 동영상 청취, 기타 기관업무 협의 및 치안정책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 연수소감-의장님 기고



### 제목 : 조화와 화합, 그리고 배려

연일 굵은 날씨가 계속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굵은 날씨의 비가 있어야 또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지난 국외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기간 내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화합이었습니다. 다양한 인격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의회의 특성상, 의견의 차이로 인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회는 각자의 역할에서 조화롭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 준 것 같아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여념이 없었던 TF팀의 젊은 의원님들,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 의원님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뿌듯했고, 우리 의회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서부에 위치한 네덜란드와 벨기에 두 나라를 돌아보면서 발전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 각각의 도시들이 특색을 이루면서 또한 조화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구의 발전 방향도 그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색을 살리고 그런 특색있는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배려 아래에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겉 모습 뿐만이 아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민(民)과 관(官), 산(産), 학(學)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회 구조의 조화와 협력, 배려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세대는 내가 살아갈 방법보다는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선배들의 경험에서 오는 조언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며 격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와 화합으로 타구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주신 데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 소감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3.4.)



**제목: 장전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성터널 공사현장에 위치한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한 방음벽 설치 예산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성터널 공사는 포스코건설에서 맡고 있으며, 지금 한창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면 현재 장전초등학교의 일부분이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장전초등학교내의 단군동상에서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끝 지점까지가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없어질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담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산시에서 방음벽예산을 누락하여 포스코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학교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학교외부와 장전초등학교 체육관의 거리는 가까운 곳은 2-3m, 크게 적용해도 불과 10m에 불과한데다 산성터널이 완공되면 이 지역은 내리막길이 되어 과속과 함께 수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특히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2층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 사진과 같이 있는 곳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옆에 일반 담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방음벽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산시 당국이 이 부분의 예산을 실수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관련부서에도 촉구합니다. 장전초등학교 당국, 학부모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관련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전초등학교는 산성터널과 주변 도로 공사가 끝나면 사방이 도로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용아파트 앞 도로와 산성터널로 내려오는 양 도로는 공교롭게도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 차량의 과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지금 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국과 학부모, 공사업체와 행정기관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식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여 장기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를 후면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남아있고, 진상규명은 여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영상을 통해 수 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누가 과연 신뢰를 보내겠으며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예방정책과 함께 반복되는 확인과 훈련, 예상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대비책,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막는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아 국가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도로환경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